

해운선사들의 미래 2D 전략

오늘날 해운은 이른바 2D 라고 불리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라는 2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해운선사들이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선박환경은 현재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 대양을 항해중인 선박을 육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완전 무인화된 자율운항선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는 별개로 해운 시장에서의 선사에 대한 직접적인 탈탄소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도전에 직면한 해운선사들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Future 2D Strategies of Shipping Companies

Today, the shipping industry i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often referred to as "2D," which stands for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If shipping companies fail to adequately address these critical challenges, they will inevitably fall behind and may not survive in the fiercely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ket.

The maritime sector is rapidly undergoing digitalization. It is utilized for real-time monitoring of vessels sailing across the oceans from the shore and various big data analysis to make important decisions related to ship operations. The emergence of fully autonomous self-navigating vessels is not far off.

Furthermor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regulations are reinforced day by day. Apart from these regulations, the pressure for decarbonization in the market is also intensifying.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shipping companies respond when faced with these great challenges.